

NS 푸드페스타 15일 개최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하림 퍼스트키친서 요리 경연대회 등 프로그램 다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K-푸드축제 'NS 푸드페스타(NS Food Festa 2023 in Iksan)'가 익산에서 개최된다.

'최고의 맛을 함께 보고 먹고 즐기는 식품 축제' 슬로건으로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합영읍 소재 익산제4일반산업단지 내 하림퍼스트 키친에서 열린다.

15일 공식행사는 전국요리경연이 준비되어있다. 전국조리특성화 단체가 참여하는 '영세프렌지', 익산 외식업체 10팀을 포함한 80팀이 1억원 상당의 상금을 놓고 겨루는 미식레시피 경연 '최고의 가부셀라면 요리사'를 뽑는 '라면요리왕' 등 저마다의 솜씨를 뽐낼 무대가 펼쳐진다.

16일에는 다문화·다자녀 가정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쿠킹클래스 식품업계 종사자와 농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커피터스가 준비됐다. 양일간 야외광장에서는 하림그룹 프



레쉬마켓, NS미리추석마켓, 익산 맛솔랭(대물림맛집), 익산 로컬푸드마켓 등 식품 전시/판매/시식 부스들로 다채로운 식품을 맛 보고 즐길 수 있다. 또한 관람객들에게는 더미식품을 모두 증정하여 직접 조리하여 즉석으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그 밖에 푸드올림픽, 버블쇼, 경품쇼, 청춘버싱, 푸짐한 경품이 있는 각종 게임 등을 통해 온가족이 즐길 수 있

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행사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림과 함께하는 미식투어'는 축제 기간동안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림 식품공장 무료 견학, 하림 생산 식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NS 푸드페스타는 익산시가 식품 산업 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청년뜰, 청년주간행사 '군산청년 함께깎' 개최

제4회 청년의 날 기념

군산시는 청년뜰(청년센터·창업지원센터)이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다채로운 청년주간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청년 함께깎'이라는 주제로 기획돼 군산청년에게 '흔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함께 하자라는 응원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창업가 심리상담 '쓰담'과 함께하는 도서 큐레이션,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함께하는 직업카드 진로상담 △개인별 1:1 맞춤 이력서·자



기소개서 컨설팅 △원스톱 창업 컨설팅, △음료 및 디저트를 제공하는 청

년뜰 썬커피 등이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으로 지구를 살리는 실천 '자원순환 친환경 제품 나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는 16일에는 부대행사로 운영하는 '군산시 청년정책 홍보부스'에 참여해 재미와 힐링을 위한 '유퀴즈온더군산'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청년의 날 기념식은 전라북도 및 시가 주최하고,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축제기획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준비됐다. 행사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 등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간부공무원 대상 상호 존중 문화 조성 교육

정현을 익산시장이 갑질 없는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공감대 다지기에 나섰다.

익산시는 13일 정현을 시장 주재로 본청 소속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호 존중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은 시장의 최우선 가치'라는 기조에 맞춰 정현을 시장의 갑질 근절 특강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 갑질의 정의, 갑질 사례, 이상적인 상사 유형, 상호 존중 공직문화 형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중요성, 갑질 근절을 위한 청렴의 가치 등이 다뤄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직사회 갑질 피해 사례 공유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직사회 관리자와 구성원 간 수평적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은 갑질

없는 청렴 익산을 구현하기 위한 청렴 의지를 다졌다.

정현을 시장은 "갑질에 대한 인식과 판단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로 다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갑질 없는 청렴하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과 모든 직원이 솔선수범해 일선에서 청렴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꾸준히 직원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소통하는 시·티 군산!'

강임준 군산시장, 직원들과 소통의 행보 이어져

강임준 군산시장이 꾸준히 직원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시장과의 직통 대화'를 통해 시장과 직원들 간의 소통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소통하는 시(장남과) 티(타임) 군산!'이라는 주제로 매월 입사 5년차 이하의 신규 공무원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세대 간 문화의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1일 시장실에서 진행된 티타임 행사에서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신규자들의 눈높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참가 직원들은 강 시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등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웃음꽃이 피는 시간을 보냈다.

또 13일 시내 한 식당에서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며 진행된 '시장과의 직통 대화'에서는 시청 소속 청원경찰과 구내식당 근무자들이 참여해 각각의 애로사항, 의견 건의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시장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들어 주시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며 "어렵게만 생각했던 시장님과의 대화가 진짜 소통이 되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다양한 위치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헌신하는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통해 그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할 맛 나는 군산시 직원들이 되도록 시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K푸드 수출·저탄소 식문화 확대 나선다

대한민국 식품 수도 익산시가 각계 각층의 힘을 모아 K푸드 수출·저탄소 식문화 확대에 앞장선다.

익산시는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 및 지역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성태)와 4차 산업융합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속가능한 저탄소·유기농 농수산물 발전과 수출 활성화 △6차산업과 미래농식품 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 농어업인 육성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 등 ESG 경영 실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UN식량농업기구(FAO) 발표에 따른 먹거리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한다는 심각성을 공감하고 협약 기관들과 함께 탄소중립에 동참한다.

정현을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우리 시도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저탄소 농업구조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2022 알기 쉬운 군산시 살림살이' 제작·배부

군산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간소화한 '2022 알기 쉬운 군산시 살림살이'를 발간했다.

수 천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전문적인 회계 용어로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기존 결산서와 달리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주요 정보를 약 30여 페이지에 알기 쉽게 담은 것이다.

이번 책자는 2022년 한 해 동안 분야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도표화하여 군산시 예산결산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으며, 유익한 지역 정보를 포함해 회계용어를 쉽게 풀어서 시민의 이해를 도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산시 일반회계 및 주요지표, △예산·결산 과정 및 현황, 분야별 세입세출 주요내역, △세계인여유금, △기금, △재무결산 등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농민 공익수당 77억원 추석 전 지급

익산시가 농민 공익수당 77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지난 7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1만 2800여 농가에게 농가당 60만 원씩 약 77억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대상자 중 다이로움 카드를 사용 중인 농가에게 오는 18일 다이로움 카드로 일괄 충전되며, 다이로움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농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8일부터 기프트카드(30만 원권 2매)로 지급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통신장,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이로움 카드 가맹점에 서민 사용 가능하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화폐와 달리 농민 공익수당은 정책 수당으로서 가맹점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익산=이재춘기자

